

제목: "슬픔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말씀: 누가복음 5장 11-17절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과부와 죽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움의 계곡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으로 바꾸신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 1) _____을 찾아가신 예수님
- 2) 불쌍히 여기신 _____의 예수님
- 3) 죽은 자를 일으키신 _____의 예수님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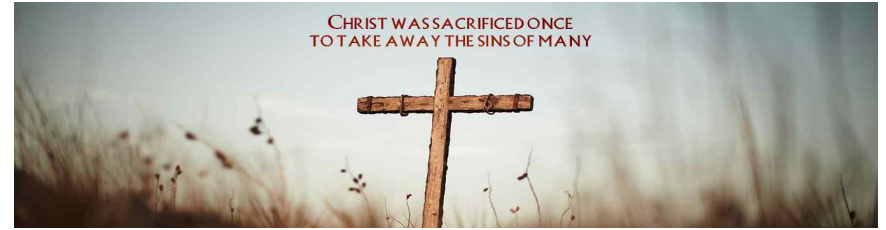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7장 11-17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5: 11-17 신약 100 페이지 Presider
- 말씀 "슬픔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miracle of Jesus Christ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너무 춥다)

지난 며칠은 정말 추웠다. 동부에서 입던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나가면 밖에 주차해 놓은 차에 얼음이 얼어 차문을 열수 없을 정도였다. 이곳 날씨도 많이 변하는 것 같다. 미국 북서부라고 하면 겨울에 비가 오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추웠는가? 나의 기억을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만 운전을 하면 자동차에서 히터가 나와서 곧 추었다는 것을 잊게 된다. 차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뜻하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춥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전염병으로 춥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떨릴 때가 많아졌다. 외롭고 우울하다는 말이 이제는 그리 크게 들리지 않는 세상에 산다. 그 이유는 전부가 우울하고 외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 밝은 빛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 후면 달에 기지를 만든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앞으로 우주에 제임스 웹 만원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주 더 멀리를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소망이 생길까?

답은 전부 아니다. 춥고 떨리고 외롭고 우울한 것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차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되듯이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추운 겨울도 춥지 않고 우울한 것도 외로운 것도 그리고 두려운 것도 전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한정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자녀들은 죽으면 그 때부터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두꺼운 옷이 필요할까? 아닐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한 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은 너무 추워서 그리고 전염병이 때를 따라 심해서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곳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이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믿음으로는 천국시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한복음 14장 1-2절)라고 말씀하신다.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이기려니 힘이 든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때가 가까우니 소망이 생긴다. 그 마음으로 살면 믿음이다. 힘을 내자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자 그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2022년 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한권 씩 받아 가셔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